



“4년을 기다렸다”

런던올림픽 개막을 사흘 앞둔 24일 오전(현지시간)런던 브루넬대학에서 열린 유도대표팀 훈련에서 김재범(왼쪽)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유도 “金 2개 메친다”

28일부터 메달레이스...왕기춘·김재범 등 도전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메달 효자'의 자존심을 이어갈 한국 남녀 유도 대표팀이 본격적인 금메달 사냥에 시동을 건다.

한국 남녀 유도 대표팀은 28일 오후 5시30분(한국시간)부터 영국 런던의 엑셀 아레나에서 여자 48kg급의 정정연(포항시청)과 남자 60kg급의 최광현(국군체육부대)의 경기를 시작으로 메달 레이스에 나선다.

한국 유도는 1984년 로스앤젤레스(LA) 대회에서 안병근(용인대 교수)과 하형주(동아대 교수)가 한국 유도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 2개를 따낸 뒤 2008년 베이징 대회까지 총 9개(남7

개·여 2개)의 금메달을 수확했다.

현재 역대 올림픽에서 일본은 유도에서 금 35개·은 15개·동 15개로 총 65개의 메달을 따내 종합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다.

그 뒤를 이어 프랑스(금 10·은 8·동 19)와 한국(금 9·은 14·동 14)이 나란히 총 37개의 메달을 확보해 메달 순위에서 공동 2위에 올라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번 대회를 통해 최소 2개 이상의 금메달을 따내 프랑스를 제치고 역대 메달 순위 단독 2위를 차지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최소 2개 이상의 금메달을 바라보고 있다.

이번 대회에선 유도 사상 통산 10번째 한국인 올림픽 금메달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도 관심거리다.

남자 유도의 '1번 타자'로 나서는 최광현은 세계랭킹 9위로 메달권에 서는 살짝 벗어나 있지만 최근 국제 대회에서 세계랭킹 1~2위 선수들을 꺾어 유도의 첫 메달 소식을 전해줄 가능성이 있다.

가장 확실한 금메달 후보는 남자 73kg급의 왕기춘(포항시청·세계랭킹 1위)과 81kg급의 김재범(한국마사지·세계랭킹 1위)이다.

왕기춘과 김재범은 각각 30일과 31일 금메달에 도전한다.

2008년 베이징 대회 때 나란히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왕기춘과 김재범은 4년 만에 돌아온 올림픽 무대를 겨냥해 그동안 뜨거운 땀방울을 쏟아냈다.

남자 60kg급과 66kg급에서 금메달이 쏟아지지 않으면 왕기춘이 역대 10번째 금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1996년 애틀랜타 대회에서의 조민선(한국체대 교수) 이후 금메달을 따지 못한 여자 대표팀은 16년 만에 금메달 꿈을 재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정훈 남자 대표팀 감독은 “한국에서 지옥훈련을 마친 만큼 이제 체중 조절과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컨디션 최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지 약물’ 복용 107명 출전 정지

2012 런던 올림픽에 나가려던 선수 중 100명 이상이 금지 약물을 복용해 올림픽 출전이 금지됐다.

존 퍼헤이 세계반도핑기구(WADA) 회장은 약물 사용이 의심되는 선수들을 조사한 결과 107명이 양성 반응을 보여 출전 자격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런던 올림픽에서 강력한 약물 검사를 예고한 WADA는 각국 체육협회와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올해 1월부터 6월 중순

까지 도핑 검사 진행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WADA는 공식 올림픽이 시작하기 이후에도 엄격한 도핑 검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퍼헤이 회장은 “도핑 선수들은 사상 최고로 엄격한 약물 검사를 거치게 될 이번 올림픽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선수촌을 개방한 지난 16일부터 공식 올림픽 기간이 끝나는 내달 12일까지

5000개 이상의 도핑 검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300개 검사에서 아직까지 양성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 올림픽에서 채취한 표본들은 앞으로 8년간 보관되며 새로운 도핑 검사 방식이 개발되면 추가적인 도핑 검사를 받는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샘플들을 대상으로 최근 추가 검사를 수행한 결과 5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고향 마운드 서는 ‘핵 잠수함’

16년만...김병현, 오늘 KIA 앤서니와 선발 맞대결

‘핵 잠수함’ 김병현이 16년만에 고향 마운드에 선다.

26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KIA의 복병이 외국인 투수 앤서니와 넥센의 빅 리거 김병현의 선발 맞대결이 펼쳐진다.

올 시즌 한국으로 돌아온 ‘빅 리거’ 김병현에게는 16년만의 무등경기장 등판이다. 김병현은 광주일고 시절이던 1996년을 끝으로 고향을 떠나 성균관대를 거쳐 미국에서 한국 야구의 새 역사를 썼다.

지난 12일 SK와의 원정경기 이후 2군으로 내려가 휴식을 취했던 김병현은 고향에서 후반기 첫 등판이자 복귀전을 치르게 됐다.

KIA와는 두 번째 대결이다. 김병현은 지난 6월14일 목동에서 열린 KIA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5이닝 5실점을 기록하며 패전투수가 됐었다.

윤석민이 팔꿈치 통증으로 등판이 미뤄지면서 토종 투수 선수들의 빅 매치는 무산됐다.

KIA 선동열 감독은 넥센과의 3연전에서 서재응-소사-윤석민으로 이어지는 선발진을 배치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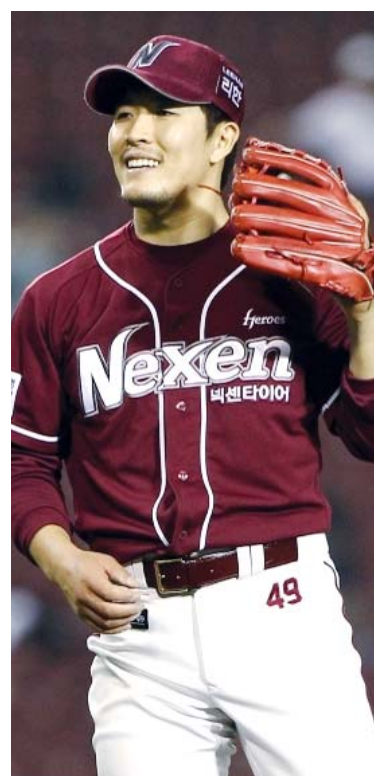
하지만 윤석민이 팔꿈치 이상을 호소하면서 로테이션에 변화를 줬다.

한화와의 주말 3연전을 준비했던 앤서니가 일정을 앞당겨 넥센전을 맡게 되며, 팔꿈치 통증으로 지난 4일 엔트리가 탈소됐던 김진우가 한화전을 준비하고 있다.

김진우는 지난 21일 소프트뱅크와 KIA 2군의 교류전에서 149km 직구로 7이닝 3실점의 호투를 기록하면서 합격점을 받았다. 24일 1군 선수단과 동행한 김진우는 27일 한화와의 첫 경기 선발로 나설 예정이다.

윤석민은 임시 선발 후보였던 양현종이 24일 등판에서 불합격을 받는데다 김진우와 불펜 피칭 결과 큰 이상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주말 경기에 출격한다.

선 감독은 “윤석민이 등판하지 못할 경우에 양현종을 선발로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24일 경기에서의 피칭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결과는 나쁘지 않았지만 구위와 제구가 좋지 못했다. 1이닝만 맡고 선발로 낼 계획이었지만 공이 좋지 않아 2이닝을 던지게 했다”며 “윤석민이 이상이 없다고 한다. 금요일 등판도 가능하지만



롯데전 성적이 좋지 않고, 사직 경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토요일(28일)에 등판을 시킬 예정이다”고 밝혔다.

로테이션상 윤석민이 27일 등판을 할 경우 다음주 사직에서 예정된 롯데와의 주중 3연전에 나서야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펜싱 알고보면 재미있어요

에페-온몸, 플뢰레-몸통, 사브르-상체 특점시 녹색·적색 불...실패하면 흰색 불

펜싱은 올림픽이 처음 시작된 1896년부터 매 대회 빠지지 않고 열린 4개의 종목 중 하나다.

올해 런던 올림픽에서는 212명의 선수가 6번의 개인전과 4번의 단체전에서 10개의 금메달을 놓고 오는 28일부터 8월4일까지 진행된다. 국제펜싱연맹(FIE)은 경기를 관찰할 때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

- 남녀 펜싱 선수들은 에페, 플뢰레, 사브르 3종목에서 승부를 펼친다.

펜싱은 체급이 없는 유일한 투기 종목이다.

- 펜싱 점의 끝은 사격 선수의 총알 다음으로 빨리 움직이는 물체다.

- 올림픽위원회 규칙에 따라 올림픽에서는 6개의 단체전 중 4개만 열린다. 올해는 남자 에페·여자 사브르 단체전이 열리지 않는다.

- 종목별 특점 부위에 분포된 전기 센서를 쫓아 점수를 따낸다. 성공하면 선수 보호 마스크에 녹색과 적색 불이

들어온다. 실패하면 흰색 불이 켜진다.

- 에페에서는 온몸이 유효 특점 면이고 먼저 찌른 사람이 점수를 얻는다. 두 선수가 4찬분의 1초 이내의 시간 차로 서로 찌른다면 점수는 모두에게 돌아간다.

- 플뢰레는 3개의 몸 중 가장 가벼운 점이다. 유효 특점 면은 몸통이다.

- 사브르는 찌르는 것과 베기가 동시에 가능한 점이다. 유효 특점 면은 팔과 머리를 포함한 상체 전체다. 이는 상대방의 팔에는 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기마병들의 규율에서 비롯됐다.

- 플뢰레와 사브르에서는 ‘라이트 오브 웨이(통행권)’라는 규칙이 적용된다. 이는 먼저 공격하는 선수가 통행권을 얻는다는 의미다. 만약 상대방이 점을 쳐내거나 막거나, 검 끝이 유효 특점 면에 닿는다면 선수는 점

수를 요구할 수 있다.

- 피스트라고 불리는 펜싱장은 14m x 2m 넓이다. 만약 한 선수의 양발이 피스트의 가장자리에 걸린다면 상대방에게 점수가 돌아간다.

- 토너먼트 방식으로 열리는 개인전은 3분 3라운드 총 15점으로 진행된다. 라운드 사이에는 1분간 휴식 시간을 준다. 동점일 경우에는 1분간 서든 데스 경기가 펼쳐진다.

- 개인전에서 선수들은 각각 두 번씩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다. 단체전에서는 한 경기당 한 선수가 한 번씩 요청할 수 있다.

축구 열풍, 광주 여름밤 달군다

오늘 오후 K리그 광주-수원전...밤엔 멕시코와 올림픽 예선전 거리 응원

축구 열풍으로 광주의 여름밤이 뜨거워진다.

26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 경기와 태극 전사들을 위한 거리 응원전이 펼쳐진다. 오후 7시30분 광주 FC와 수원 삼성의 K리그 23라운드 대결이 벌어지고, 밤 10시30분부터는 한국과 멕시코의 런던 올림픽 B조 예선전 거리 응원전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달성했던 10년 전 뜨거웠던 여

름을 재현하고 올림픽 사상 첫 메달에 도전하는 축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장을 찾은 축구팬들은 광주와 수원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에 이어 대형 전광판을 통해 태극전사들의 생생한 경기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 광주 장내 아나운서가 시민들과 함께 뜨거운 응원전을 펼칠 예정이다.

치어리더와 프리스타일풋볼 팀의 공연과 운남고 여자축구팀과 광주

FC 유소년 축구팀의 이벤트 매치도 진행된다.

푸짐한 경품도 마련됐다.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삼삼 40인치 LED TV,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디지털 카메라, 청연한방병원 경유고,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50만원), 현대오일뱅크 주유권, 빙스 및 알레스카 패밀리 레스토랑 식사권 등이 경품으로 제공된다.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아리랑하우스의 여름특선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출플러스 건너편)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과주흥 맛집
광주광역시 금수동 1-1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의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www.geumsoojang.com